



12면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 삼국시대 유물 출토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음 8월 25일) 제359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거버넌스형 식품문화축제 ‘팡파르’

‘편견 없는 세상, 함께하는 우리’

‘NS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 개막, 오늘까지 진행... 요리경연·식품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다채

국내 유일의 거버넌스형 식품문화축제인 NS푸드페스타(Food Festa 2024 in Iksan)가 26일 익산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 경연참가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NS푸드페스타는 익산시와 NS홈쇼핑의 공동 주최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합평읍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하림퍼스트 키친에서 열린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에는 3개 부문에 총 100개 팀이 참여했다.

가장관전식은 60개 팀이 참가해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최고의 맛’을 주제로 60분간 경쟁을 펼쳤다.

전국조리특성화고등학교 요리경진대회 예선을 통과한 영세프랜차이즈 20개 팀은 자신의 레시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특별 부스에 자신이 만든 요리를 전시하며 셰프의 꿈을 다졌다.

또 식품 조리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프레쉬박스 요리경연 부문 20개 팀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다.

올해 프레쉬박스 부문에는 신선한 하림 닭고기와 익산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가 식재료로 제공됐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 익산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마켓이 운영됐고, 익산시 로컬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는 NS홈쇼핑의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현장에서 진행됐다.

선진포크 제품을 활용한 색다른 요리로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프레쉬 미식회와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식품창업협의의 시제품 품평회, 청년창업 기업의 상품 시식 및 전시 홍보를 지원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관’도 눈길을 끌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홍보 및 면접 컨설팅을 지원하는 디아로움 성공취업박람회도 행사 기간동안 진행했다.

지역 대표 식품기업인 (주)하림산업과



26일 익산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국내 유일의 거버넌스형 식품문화축제인 ‘NS푸드페스타’ (Food Festa 2024 in Iksan)가 개막한 가운데, 요리경연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삼양식품, (주)오리온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우수 기업 등 50여 개사가 참여한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채용면접을 진행하고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헤어·메이크업 컨설팅 등 구직자 취업서비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하림 퍼스트키친에서는 관람객 누구나 식품이 만들어지는 생산현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식투어가 운영된다.

축제 2일 차에는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농식품 우수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식품스타트업 경진대회’도 열린다.

농식품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9개 식품사업 청년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며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창의성 1,00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과 경기대, 하림 등 산학관연이 함께 하는 소스산업 기술교류 세미나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국내 식품기업 우수사례를 조사해 발표하는 대학생 식품기업 분석대회와 경연대회 우승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도 열릴 예정이다.

NS푸드페스타 기간 야외무대에서는 신나는 예술버스와 청춘버스킹 등 다양한 라이브 공연과 게임, 경품 이벤트 등 레크레이션이 진행되며, 27일에는 서초 한우리오케스트라의 피날레 공연도 볼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NS푸드페스타는 요리경연대회와 다양한 먹거리 정보,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진정한 식품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내 대표 ‘농식품 메카이자 식품 수도인 익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는 “NS푸드페스타는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거버넌스형 식품문화축제”라며 “NS푸드페스타가 식품산업과 식문화를 선도하며,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이어가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제13회 젠더문화축제 개최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수용 젠더 감수성 성찰 시간 가져

젠더문화축제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선입견 해소되는 기회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26일 재단 일원에서 ‘제13회 젠더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편견 없는 세상,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청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 등 여성관련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도민 1,500여명이 함께했다. (관련사진 3면)

특히 이날 축제에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100여 명을 초대해 ‘가족문화 인식 개선 인형극’ 공연을 펼쳐 가족의 소중함과 현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성평등 시선으로 다시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미디어가 담고

있는 성평등·성차별적 사례를 분석, 젠더 감수성에 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시 한번 성평등한 사회로 접프!’라는 주제로 진행된 ‘Talk Talk한 그녀들’에서는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희은 원장을 초청해 진정한 성평등에 대한 정의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외에 ‘영화상영 및 GV(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배급지원상 수상작인 박정미 감독의 ‘담요를 입은 사람’을 상영하기도 했다.

축제에 참가한 한 도민은 “젠더문화축제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선입견이 해소되는 기회였다”며 “성별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인식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정희 원장은 “젠더문화축제는 지역의 여성·가족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성평등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외침”이라며 “편견 없이 남녀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최종 선정

‘혁신’ 한상섭·‘경제’ 이길환·‘문화’ 조상훈·‘나눔’ 김남수씨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 상은 전북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모범적인 인물들을 찾아 수여하는 전북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혁신대상, 경제대상, 문화대상, 나눔대상 4개 부문에서 총 26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혁신대상에 한상섭 △경제대상에 이길환 △문화대상에 조상훈 △나눔대상에 김남수씨 등 총 4명이다.

혁신대상 수상자 한상섭씨는 한국실업동물 학회장 및 한국독성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비임상실험(동물실험 및 GLP독성실험) 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함으로써 국가 신약



‘혁신’ 한상섭씨 ‘경제’ 이길환씨 ‘문화’ 조상훈씨 ‘나눔’ 김남수씨

개발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경제대상 수상자 이길환씨는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대표이사로서 우수건축물을 설계해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과 건축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

문화대상 수상자 조상훈씨는 동남중 대표로서 전북 최초 전문인 전통 타악 그룹 동남풍을 창단해지속

적인 공헌활동을 벌였다.

나눔대상 수상자 김남수씨는 자영업자로서 2012년도부터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기탁 등 나눔 실천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25일에 한곡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44회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상패와 메달을 받을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